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23 진흥왕과 황룡사

황룡사 불상, 아쇼카왕이 도왔다



신라시대 최고 사찰인 황룡사가 지금은 쓸쓸히 그터만 남아있다.

진흥왕은 신라의 영토를 넓힌 최고의 군주로 세속적 발전과 더불어 불교 또한 성대하게 발전시켰다. 그 중 황룡사(黃龍寺) 건설이 가장 대표적이다. 황룡사는 진흥왕 14년(553)에 경주 월성의 동쪽에 궁궐로 세워질 계획이었다. 그런데 공사 도중 황룡(黃龍)이 나타나 절로 고쳐 짓기 시작했다. 공사를 시작한지 17년 만인 진흥왕 31년(570년) 완성됐다.

얼마 뒤 지금의 울산 땅에 사람이 타지 않은 배 한척이 들어 왔다. 배안에는 인도의 아쇼카왕이 보낸 금과 철, 불상 등이 실려 있었다. 아쇼카왕은 “철 5만 7000근, 금 3만분으로 석가삼존불상을 만들려다 뜻을 이루지 못해 금과 철, 그리고 삼존불상의 모형을 배에 실어 보낸다”라는 글을 적어 보냈다. 이것으로 진흥왕 35년(574년)에는 삼존불상을 조성했다.

높이는 장육(丈六: 한길 6자, 16자라는 뜻이며 5.6m 내외)으로, 이 불상은 신라 불교를 다시금 새로운 임정에 서게 했다. 신라는 인도의 아쇼카 왕도 조성하지 못한 불상을 조성했으며, 전 불시대의 가람이자 인도불교의 범맥을 전승한 최고의 성지를 서라벌에 구현했다.

93년에 걸친 국가사업으로 조성된 황룡사는 <삼국사기> 경명왕조에 등장하는 신라삼보(新羅三寶: 신라의 3가지 보물) 중 두 가지인 황룡사 9층 목탑과 장육존상을 가지고 있는 최고 사찰이었다. 하지만 이 황룡사는 1238년 몽고병란으로 완전히 불타버리고 만다.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는 황룡사에 대한 역

사적 복원은 항상 논란을 가져온다. 높이를 매워 그 위에 지은 황룡사는 중문·목탑·금당·강당이 남북으로 길게 배치된 1탑식 배치였다. 그러나 장육존상과 목탑 등이 조성된 후 금당 좌우에 작은 금당이 배치되는 1탑 3금당식이라는 독특한 가람 형태를 지니게 된다. 탑의 좌우에 종루와 경루(經樓)가 대칭을 이뤄 배치됐으며 주변은 길고 긴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종루에는 거대한 종(鐘)이 있었는데, 몽고가 침입했을 때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추론해 볼 때, 황룡사는 신라사회에 불교적 위상을 공고히 한 사찰로 짐작해 볼 수 있다.

1976년부터 시작한 발굴조사에서 금동불입상·종탁·금동귀걸이·각종 유리 등 4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으며, 높이 1.82m에 이르는 대형처미는 건물의 웅장한 규모를 짐작케 한다.

황룡사는 단순히 사찰이나 불상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 아니다. 신라가 불교를 통해 이루려 했던 열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절터이자, 인도 최고의 군주였던 아쇼카왕의 인연, 문수보살의 예언으로 건립된 탑 등 단순한 불교신앙을 넘어 이 땅에 불교와 국가가 맞닿아 있는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상연

아쇼카왕, 철·금·불상 모형 보내와
5.6m 삼존불 황룡사에 조성했지만
9층 목탑과 함께 몽고병란 때 소실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68 늘 궁금한 세상



낮달이 기울면서 도랑엔 긴 그림자들이 내려 안기 시작했다. 밥 냄새 물고 올라간 후원의 연기가 여기저기 밥 때를 알리고 다녔다. 도랑 위 차밭에선 백구 한 마리가 고양이들을 쫓고, 이 고양 저 고양으로 도망 다니던 고양이는 간신히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숨을 돌렸다.

앞뒤 없는 풍경소리가 도랑을 흔들고, 경을 넘기던 스님의 손끝에는 어느새 목탁이 걸려있다. 멀리 차 밭에서 백구가 짖는다. 백구가 생각이 많아진 것 같다. 나무 밑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짖어댄다. 나무에 매달린 고양이는 백구가 돌아가기만 기다리고 있다. 후원의 밥 냄새도 도랑의 그림자도 점

점 짙어만 갔다. 공양하고 나오니 백구도 고양이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선가 백구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된 걸까. 백구와 고양이는... 보고 들은 것 때문에 늘 세상이 궁금해진다. 지금 보고 듣는 것들이 늘 세상을 궁금하게 한다. 어느 해 이른 봄 사천 다술사에서.



사진부 차장 박재완

한국의 전시감상 3

고려 태고보우 선사의 '죽암(竹庵)'

中無一物本來清 (중무일물본래청)
舉世無人窺戶庭 (거세무인규호정)
鳳嘯龍吟破禪寂 (봉소용음파선적)
一竿明月滿江城 (일간명월만강성)

속에 아무것도 없어 본래 맑으니
은 세상에 그 뜻을 엿볼 사람 없네,
봉황의 휘파람, 용의 울음소리 삼매를 깨뜨리는데
한 줄기 밝은 달은 강마을에 가득하네.

고려 태고보우(太古普愚: 1301~1382) 스님은 13세 때 회암사(檜岩寺)로 출가해 당시 사대부인 채홍

철(蔡洪哲)의 개인 별장인 전단원(檀檀園)에서 동안거 결재 중 '무(無) 자 화두로 활연대오(豁然大悟)했다. 스님은 "마음을 밝히는 것이 불(佛)이요,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 교(教)"라고 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무자화두로써 늘 학인을 제정했는데 "옷을 입거나 밥을 먹을 때에도 항상 고양이가 쥐를 잡듯, 닭이 알을 품 듯"이 화두를 행기라고 했다. 스님은 "막힌 관문 깨뜨리고 나니 맑은 바람이 태고에서 부네 [打破牢關後 清風吹太古]"라는 오도송을 남겼는데 이로 인해 '태고(太古)'라는 호를 가지게 됐다. 위 시는 대나무의 특성으로써 죽암(竹庵)이라는 법명을 가진 스님에게 가르침을 보인 것이다. 속이 비었다는 것은 자성(自性)이 공(空)하기 때

문에 본래 청정함을, 뜻을 엿볼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죽암 스님의 수행의 깊이가 그렷음을 비유했다. 봉황과 용의 울음소리는 비어있기에 더욱 큰 사자후를 토해내고 있음을, 죽암이 위치한 달빛 받은 강마을의 정경을 통해서 스님의 비어있음으로 인해 진정 한가로울 수 있는 경지를 그려냈다.

태어나면 이름을 부여받는다. 부처님께 귀의해 계를 수계하고 나면 법명을 받는다. 자신의 법명이 무엇인지, 왜 그 법명이 내게 주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들의 법명, 나아가 자신의 이름을 본받을 대상으로 삼아보자. 그 삶은 진정 아름답고 가치 있는 정도(正道)의 생(生)이지 않을까? 보우 스님이 법명을 시제(詩題)로 삼은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원법 스님(성균관대 문학박사)

天氣福

화제의 신간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삭빠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베트불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임원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원본 스님(성균관대 문학박사)